

광우병 사태에 대한 성찰과 원자력산업에의 함의

최 광 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



머리말

‘미친 소’에 의해 촉발된 유행하지 않은 ‘촛불잔치’가 한국을 흔들고 있다. 이 광우병 이야기는 한 방송 매체의 보도로부터 촉발되어 온라인상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인터넷과 모바일폰에 의한 네트워크에 의하여 집단화된 사람들이 거리로 촛불을 들고 나섰다.

이명박 정부 시작 불과 100일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더니 오늘 여러 이익단체들이 관여하면서 보다 높은 정치운동으로 변질되고 있고, 정부는 여러 차례의 사과, 청와대 수석 교체, 개각 등을 시행하여 이 국면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천정부지로 오르는 오일 가격, 그리고 청년 실업과 구조 조정의 불안 등 불길한 전주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촛불 집회로 모인 그 사람들의 머릿속은 무슨 생각들이 지배하고 있는가?

촛불이 어둠을 배경으로 만들어 내는 스크린 속에는 구멍이 송송한 소의 뇌 사진과 비틀거리며 주저앉는 소들 모습이, 그리고 15년 후 우리 자신 혹은 우리 자식들이 그런 모습으로 휘청대는 모습이 오버랩

되고 있는 것일까? 미친 소의 공포가 정치의 중심에서 떠오르는 이 시대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가?

촛불이 가져다주는 심리적인 집중 효과는 대단하다. 이는 종교적인 의식에서 거의 예외 없이 촛불들이 사용되는 것에서 나타난다. 명산에서의 산신령에 대한 기도, 장례식, 그리고 사찰과 가톨릭의 미사에 이르기까지 촛불이 사용되는 곳은 광범하다.

MT를 가거나 무슨 자기 개발 교육을 가거나 아니면 정전이라도 되어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흔하지 않은 밤에 서랍을 뒤져 촛불을 켜 본 사람은 알 것이다. 어둠을 물리치고 조그맣게 확보하는 동그란 빛의 공간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고양되는지를¹⁾. 촛불은 어떤 이에게는 종교적인 법열

1) 가시적인 공간의 복잡한 사물을 차단하고 촛불만을 응시할 때, 자연스레 흔들리면서 그 자신을 태우며 위로 오르는 그 오랜전색 불꽃의 상형성에 촛불이 제공하는 그 오묘한 공간에서 사람들은 고상함을 지향하는 영혼의 모습을 본다고 가스통 바슐라르는 ‘촛불의 미학’에서 쓰고 있다.

로, 어떤 이들에게는 간절한 기원의 징표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집단적 제의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그 촛불이 오늘날 이 복잡한 사회에서 생각과 이해를 같이하는 집단의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의사 표현의 수단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촛불을 든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긴장된 표정의 어린 전투 경찰들과 대치한 정경은 21세기 한국의 한 기괴한 풍속도를 이루고 있다.

우리는 오늘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런 의문들을 떠올릴 수 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유도차를 끌고 나온 주부들과 일부 천주교 사제들과 일부 불교 승려들이 함께 촛불을 들고 나오는 이 사태는 우리의 먹거리의 안전을 우려하고 미래를 생각하여 경종을 울리며 국가적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리더십과 집단 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의 발현 과정인가?

이것이 누군가의 주장대로 새로운 광장 문화의 한 모델을 제공하고 있으며, 디지털 선진국답게 세계 최초로 새로운 디지털 직접 민

주주의를 우리나라에서 실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인가?²⁾

아니면 이것은 거짓 정보와 진실의 왜곡과 교묘한 은폐, 그리고 선동주의적 방송 매체에 의하여 촉발된 어리석은 대중의 집단적 반응이며, 그렇게 하여 형성된 집단의 광기 혹은 집단 히스테리 현상인가?

그러한 방송사들은 대중들이 모르는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알리는 진정한 지성의 목소리인가? 아니면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치면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자신을 주목하는 것으로부터 반사적 이익을 얻는 교활한 양치기인가?

광우병 공포의 실체, 과학적 근거에 실제적 진실은 무엇인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오늘날 사실 혹은 진실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거나 하는 것일까?

그리고 필자는 이런 질문을 던져 본다. 미친 소가 옮기는 질병에 대한 공포와 그것이 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과 유사한 사태가 원자력 분야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과연 우리는 충분히 이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

수십 년 만에 찾아온 세계의 원

자력 르네상스에의 기대감으로 이제 방사능에 대한 국민들의 근거 없는 막연한 불안과 공포의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본고에서는 현대 사회의 특성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광우병 사태를 몇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원자력 분야에서 방사선 리스크와 관련한 여러 사건들을 살펴본 후, 이러한 유사한 사태가 원자력 분야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여야 할 일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 사회의 특성

1. 위험한 사회

서구에서 대두된 위험사회론은 단순 산업화를 넘어 탈산업화에 진입한 사회에서 극한적인 개인주의의 만연 등으로 비롯된 높은 수준의 위험성을 지적하기 위한 담론이다.

한국도 이미 그러한 위험한 사회의 범주에 들어와 있다고 많은 학

2) 서울대 윤리교육과 박효종 교수는 '광장 민주주의의 허와 실'이라는 글에서 촛불 집회로 상징되는 광장 민주주의가 양질의 의사 소통을 담보로 하는 민주주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광장 민주주의는 때로는 이성애 호소하는 설득이 되기도 하고 저급한 감정에 호소하는 선동이 될 수도 있지만, 상식과 이성을 잃어 민중의 감정에 휘둘리는 광장 민주주의는 우중 민주주의에 불과하며 바람직한 소통의 모델로서 광장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광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 자기 절제력을 가져야 한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 그는 광장 민주주의가 빛을 발하려면 부조리한 선동과 자극보다 이성과 절제가 살아 꿈틀거리야 하며 대의 민주주의가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 혹시 그게 아니라면 선거 민주주의가 채워주지 못하는 갈증을 풀어주는 것이 광장 민주주의의 여젠다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민주 사회의 시민들이라면 때로는 이의도 제기하고 비판도 제기하며 혹은 성난 목소리로 고향을 칠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침몰하는 난파선의 사람들처럼 상식과 이성을 잃을 정도로 무례해서는 안 되며 그런 광장 민주주의라면 이성을 가진 대중 민주주의가 아니라 번덕스러운 민중의 감정에 휘둘리는 우중 민주주의에 불과하고, 바람직한 소통의 모델로서 광장 민주주의가 '지속 가능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난폭한 수사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려 하는 자극형 선동가들보다는 냉철한 이성의 힘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분별력 있는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호소하는 발언자와 연결가들이 필요하며 그런 연결가들이 많아야 광장 민주주의는 성공한다고 말하고 있다.



미친소가 몰려온다!!

2008년 5월, 당신의 몸이 마루타가 된다!
 한미FTA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전면개방 반대!!!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힘을 합치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당신, 그리고 당신의 가족!
 당신의 아이들이 위협받습니다!!!!



자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의 대형 사고를 겪으면서 그러한 주장은 더욱 힘을 얻어왔다.

일부 학자는 한국 사회는 서구의 위험 사회적 요소와 함께 압축적·파행적 근대화로 인한 한국의 사회 요인들로부터 비롯되는 위험 요소가 동시에 포착되므로 ‘이중적 위험 사회’라고 주장(임현진)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대응해야 할 위험의 종류도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그리고 국가 간 교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위험 요인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일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9.11에서 보듯이 국제적 테러리스트들의 침투와 위험한 식품의 교역, 여행자들에 의한 사스의 전파, 그리고 조류독감 등 위험 병원체들의 다양한 경로를 통한 확산도 우리 사회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안전성의 수준은 더욱 상향화되며 궁극적으로 절대 안전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실제의 위험보다도 여러 매체를 통하여 위험에 대한 불안전하고 왜곡된 지식과 정보의 전파가 이루어짐으로써 대중들의 인지 위험도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어 이러한 일들에 대응하는 것은 개인 뿐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도 더욱 어려워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2. 디지털 사회의 하이에니즘

오늘날 디지털 사회에서 인터넷 공간을 통하여 네티즌들이 권력의 중심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과거 정부가 그리고 정치 집단이 독점하였던 권력이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나 가진 것 없는 약자들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한 성향은 인터넷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더욱 현저하다.

익명성에 기대어 허위와 거짓을 버무려서 그것에 본인의 스트레스와 개인과 집단의 정치적 선호를

반영하여 발신하면 그것에 동조하는 그룹들과 행동주의자들이 이에 호응하면서 폭발적인 힘으로 사이버 공간을 댓글로 점령하고 그것이 정치적 영향력으로 연결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 디지털 사회의 현주소이다.

디지털은 그 콘텐츠의 대량 복사가 가능하고 무한 전파되며 그 콘텐츠의 품질이 복사에 의하여 저하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그 콘텐츠에 대한 사람들의 중요 등 정서까지 복사 재현 전파되며, 건잡을 수 없이 인터넷을 통해 그리고 모바일 폰을 통해 확산된다.

지금은 '나는 모바일포닝 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류의 모바일형 인간이 되어가는 사회, '호모 모빌리쿠스'의 시대이며, 나비 효과로 대변되는 작은 초기 조건에 의한 통제할 수 없는 결과의 증폭성, 그 카오스적 특성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시대다. 인터넷 디지털 노마드(디지털 유목민), 네트워크 군단(network army), 이런 것들이 이 시대를 특징짓는 키워드들이다.

이러한 사회적 특성은 정치적 불만을 실시간으로 직접 표출하고 자기와 다른 의견들에 대한 매도와 인민재판식 혹은 마녀사냥식의 무시무시한 공격을 가능하게 한다.

인터넷 공간을 신이 나서 돌아다

니는 소위 누리꾼들은 완전한 실명제가 구현되지 않은 현재 여건과 기회주의적인 포털사이트들의 허점을 이용하여 여기 저기 댓글을 달고 소문과 글들을 퍼 나르고 자기들과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저질의 욕설을 해대면서 천박한 여론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것에는 역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나 미디어들도 참여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³⁾

인터넷 매체와 동영상을 앞세운 방송 매체들은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본질적으로 선정주의로 흘러가는 성향이 있다. 그들의 언론으로서의 사명 의식은 이러한 선정주의를 스스로 정당화한다. 그리고 오늘날 방송 매체 역시 어떤 정치적인 노선을 설정하고 그것에 따라 대중들을 적극적으로 조작하려 한다. 사람들의 눈과 귀를 점령한 방송 매체의 영향력은 너무나 강력하며 그 폐해는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오늘날 이들의 욕설과 무시무시한 인신 공격성 발언들은 한 개인을 여지없이 무력화시킨다. 수십만 수백만이 던지는 작지만 적개심에 불타는 날카로운 돌멩이들에는 대응하는 것은 정부라도 역부족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학교에서 받고 있는 상당 부분 왜곡된 교육과 그로부터 기인한 우리 사회의 무례함과도 연결되어 있다. 오늘날 사회에서 인터넷 공간에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의견을 달리 하면 그리고 기회가 포착되면 일제히 달려들어 물고 찢는 형국이 가히 '만인은 만인에 대한 이리'라는 토마스 홉스의 발언을 상기시킨다.

오늘의 공격자가 내일의 피해자가 된다. 한 마디의 말실수가 네티즌들에 의하여 포착되어 이것이 목표로 설정되면 모두들 별때같이 달려들어 물고 뜯어 여지없이 추락시켜 버리는 사회이다. 이는 부상당한 먹이를 찾으면 사정없이 몰려들어 물고 뜯는 하이에니즘에서 더 나아가서, 오늘날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의 개인들이 몰려들어 한 개인을 물어뜯는 이 현상은 물고기 피라니어들에 함께 몰려다니다가 동료 물고기가 상처를 입어 피 냄새를 흘리면 일제히 달려들어 순식간에 빼만 남기는 현상과 비슷하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을 아우르면서 오늘의 공격자가 단숨에 내일의 피해자가 되는 대단히 다이내믹한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으며⁴⁾ 디지털 강국인 우리나라의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과 모바일 인프라는 그 토양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3)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에서 노사모가 보여준 모바일 결집력, 탄핵 사태에서 카메라 앞에서 효과적으로 울부짖는 의원들 동영상의 24시간 방영으로 촉발된 초선 의원들의 양산, 그리고 황우석 교수 사태의 전 국민적 소동과 월드컵을 둘러싼 붉은 악마들의 홀리건적 양태, 그리고 선교 단체의 아프가니스탄 납치 사건 때 무차별적 사이버 테러 등의 국민적인 히스테리 사태가 그것이다.

4) 이는 근래 가수이며 방송 진행자이자 과거 정권에서 대중들 앞에서 미국을 공격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던 모 가수가 공개 방송에서 귀여운 자기 딸에 대한 뽀뽀 발언 내용을 두고 성희롱이라는 의견으로 네티즌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사태에서 알 수 있다.

3. 리스크 인지(risk perception)와 집단심리

보통 리스크란 어떤 사고 발생 확률과 그 결과의 곱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의 눈과 귀 등 우리 감각 기관을 통하여 뇌의 신경 회로를 거치고 전기화학적 과정을 거쳐서 위험에 대한 판단을 형성한다.

사람들의 위험에 대한 인지는 두려움, 통제 가능성, 후손에의 영향 등 여러 요인과 관계가 있다고 한다. 우리 주부들 머릿속에는 뇌에 구멍이 송송 뚫린 채 비틀거리다 쓰러지는 소의 모습과 미국의 광우병 쇠고기로 만든 햄버거에 노출된 자식과 곰국과 곱창을 먹는 가족들이 15년 후에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모습이 겹쳐져 있다. 그 상상만으로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개개인의 위험 인식들이 집단화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히스테리 현상으로 발전한다.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만인은 만인에 대한 이리와 같다. 선망과 질시, 불만과 증오 등으로 점철된 오늘의 우리 사회. 축적된 강도 높은 스트레스

와 갈등들은 계기만 주어진다면 격렬하게 분출하는 것이다.

광우병 사태에 대한 성찰

그러면 이 광우병 사태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 필자는 여기서 광우병의 과학적 사실에 대하여 반대자 측과 정부 측의 주장을 비교하여 논하거나 분석을 하지는 않으려 하며⁵⁾ 앞에서 언급한 우리 사회의 특성과 관련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1. 복잡계적 사회 현상

미국 산 ‘미친 소’가 촉발한 오늘의 사회적 현상은 단순히 광우병에 대한 과학기술적 리스크의 인식과 구멍이 송송한 뇌 사진과 비틀거리는 소의 동영상으로 촉발된 공포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것은 정치적 집단의 이해 관계, 진보와 보수노선의 정치적 갈등, 역시 진보와 보수의 방송 언론 매체 간 반목과 그들 정치적 노선의 충돌 등 대단히 복잡한 요소들이 개재되어있다. 그리고 일부 국민의 ‘반미 정서’와도 뒤섞여 있

다.

그리고 이것은 비싼 기름값, 고물가, 구조 조정과 취업의 어려움에 대한 스트레스 등을 배경으로 폭발적으로 확대 전파되어 사회적 집단 히스테리 현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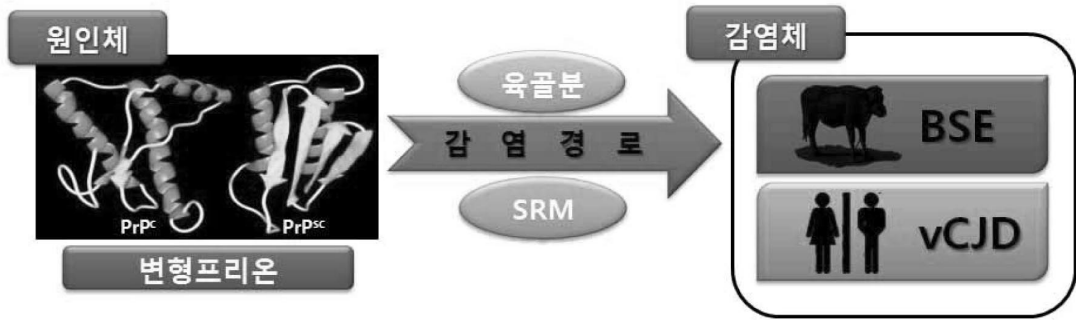
네트워크 전사(network army)들이 이 ‘미친 소’를 이슈로 포착하였고, 이들이 발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 사회의 불만의 고유 주파수와 공진 현상(resonance)을 일으킨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초기의 작은 사건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카오스적 특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며, 이에 대한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를 우리 국민들이 먹을 수 있게 되었으니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식의 안이하고 단순한 대응이 이러한 현상을 폭발시켰다고 할 수 있다.⁶⁾

이번 방송 매체가 내보낸 충격적 동영상과 교묘한 논리 전개는 대중을 광우병에 대한 공포로 거의 패닉 수준으로 흥분시키기에 충분하였다. 그러한 동영상과 지식들과 그런 의견들을 공유하고 전파하는 사람들과 소문들의 벽에 둘러싸이

5) 광우병은 소의 뇌 조직이 스펀지처럼 구멍이 뿔뿔 뚫려 결과적으로 공격적이거나 비틀거리며 뒷다리를 질질 끌다가 주저앉는 병이다. 학자들은 풀이나 건초를 먹이로 하는 초식 동물에게 동물성사료를 먹이면서 단백질이 변종되어 발작 증세의 원인인 프리온이 소의 뇌에서 광우병을 일으킨다고 하며 또 사람이 프리온을 포함한 소를 먹고 프리온이 옮겨가면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을 유발하며 결과적으로 광우병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와 있다. 육골분 사료를 먹인 것은 “소가 소를 잡아먹은 결과”가 되었으며 육골분 사료에 대해 “윤리적으로 소에게 자기 동족의 고기를 먹일 수 없다.”고 끝까지 육골분 사료 수입을 거부한 스웨덴은 2005년까지 단 한 마리의 광우병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영국과 독일에서 각각 “공장식 사육 체계에 대한 전면 개편”, “기업 농업 대신 유기농 방식을 채용한 소규모 농장체제로의 개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도 보다 위생적인 사육 시설에서 가축을 밀집 사육하지 않는 환경 하에서 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이영순).

6) 오늘의 미친 소 사태는 광우병 소가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동영상을 미디어와 인터넷에서 접한 사람들이 손에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그 집단 심리 현상에 대한 아날로그적 대응의 한계로 볼 수도 있다.



면 누구도 그 공포에서 헤어나기 힘들다.

선정적 보도, 하이에나주의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가 뒤섞인 2008년의 이 ‘미친 소 사태’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것이 우리의 환경과 먹거리에 진지한 관심을 촉발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될지, 아니면 방송사의 선정주의와 교묘한 왜곡 보도로 국민들을 오도한 사건으로 기록될지를 판별하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우리는 동 시간대에 모든 사람들이 한 사건에 대하여 확실하게 파악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매체와 접촉하고 있고 그 복잡도가 커져 있기 때문이다.

2. 정책 시행에 있어서 단선적 사고

정부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가져 오기보다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들 부작용을 날

는 정책 결정의 근저에는 대개 단선적 사고의 오류가 존재한다. 문제의 배후에 존재하는 구조 및 시스템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정책이 수립 추진되어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정책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피드백 루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정책 실행 자체가 초래하는 부수 효과와 변화된 현실에 대한 관련주체들의 반작용으로 구성되는데, 현실에 대한 협소한 인식과 단선적 사고에 매몰되면 의도하지 않은 루프의 존재를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⁷⁾

아마도 정부 당국자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면 우리 국민들이 보다 값싼 쇠고기를 먹을 수 있으며 그 동안 검색되었던 한·미 관계를 회복하고 FTA 타결의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 공산품들의 대미수출이 활성화되는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피드백 루프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부정적 피드백 루프로는 우리 한우 농가의 어려움 정도를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정책 결정은 한 방송사의 보도와 이에 격렬히 반응한 네티즌들의 활동으로 거대한 촛불 집회와 이어서 정치적인 반대 집회로까지 이어져서 정부 정책 실패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 바, 이는 보다 더 시스템적인 사고(system thinking)가 필요하였던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3. 사회 심리에 대한 이해 부족

어떤 사실의 파악에는 시간이 걸린다. 어떤 현상 혹은 내막을 기술하는 것은 인간이 그 상황에 대한 인지 과정과 이해와 논리적인 추론을 거쳐 재구성한 것이다. 더구나 오늘날은 진실의 인지와 이해와 재구성의 과정의 복잡도가 현저하게 증가되어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과학적 사실에

7) 이러한 다양한 정책부작용의 발생 양상은 의도한 루프와 의도하지 않은 루프의 속성에 따라 제어 실패형, 원상 회귀형, 심화형, 성장 한계형으로 구분한다. 대부분의 정책 부작용 사례들은 이 네 가지 유형 중 하나에 속하거나 2~3가지가 결합된 복합 유형에 속한다. 이들 유형을 파악하면 정책 부작용을 막기 위한 처방 도출이 용이해진다. 정책 부작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정책에 대해 관련된 모든 피드백 루프의 검토, 종합적인 처방책의 강구, 사고 모형의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 사고의 전면적인 도입과 관련 주체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입장의 통합, 모든 피드백 루프에 대한 처방책 마련과 시뮬레이션에 의한 영향 평가, 정책 평가와 학습의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김창욱 외, 시스템 사고에 입각한 정책 설계 방안, 2008.7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근거한 수치로 나타난 위험도보다 소수 선동가에 의하여 촉발되어 과장되고 왜곡된 지식과 정보에 의하여 지배당하기가 쉬워진다. 인터넷을 통하여 검증되지 않은 지식이 무서운 속도로 올라오고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확인할 방법도 없이 그리고 그런 의지도 없이 이를 퍼 나른다. 그리하여 전 사회적으로 편향된 지식이 널리 유포될 수 있다.⁸⁾

더구나 이것이 몰려올 재난이나 위협의 공포와 관련된 것이면 그 결과는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인류사에서는 몰려올 재난에의 공포와 이를 알리는 정치적인 그리고 선동적 메시지에 의하여 집단이 광포하게 반응한 여러 사례가 있다.

이는 사회적 집단 심리 현상이며 1978년 가이나나에서 인민교 교주 짐 존스가 외부에서 자기들을 공격하러 온다는 소문을 퍼뜨리면서 공포를 조성하여 900여명의 신도들과 집단 자살한 사건, 2차대전시 동경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국인이 일본인들을 공격하러 온다는 루머에 한국인들을 집단 린치한 사건 등도 그런 것들이다. 중세 시대의 십자군 원정도 그러한 사회 집단 심리 현상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미국산 미친 소의 고기들이 미친 듯이 우리나라로 몰려들어 식당과 학교 급식 등을 통하여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족과 자식들이 그 고기

를 먹게 되며 이로 인하여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리고 결국은 비틀거리다 죽게 된다는 공포의 메시지가 사이버 공간을 퍼질 때 이것은 사람들을 집단화시켜 거리로 내몰기에 충분하였던 것이다. 우리 지도자들은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으며 그것이 안이한 대응을 불렀다고 볼 수 있다.

원자력산업에의 함의

이 광우병 사태는 근 두 달 이상을 우리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큰 사회적 현상이며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실체적 진실이나 그 영향에 대한 규명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태, 즉 불확실성이 큰 인체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 특히 인터넷 환경을 통한 네트워크 군단들의 활동과 이에 동조하고 그 자극적 메시지를 퍼나르고 이것들이 전파되어 큰 사회적 파문을 불러일으키는 현실과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에 성공하고 있지 못하는 이 현상은 그러면 원자력사업에 어떤 함의를 가지는 것일까?

우리나라도 원자력 분야에 방사능에 대한 대중의 공포와 관련된 많은 사건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1989년 6월 9일 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전기 보수공으로 근무했던 직원이 위암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

생하였고 더욱 결정적인 것은 ‘영광 핵발전소 직원 부인이 유산한 아기가 무뇌아였다’는 7월 29일자 전남매일신문 보도였다.

이후 1989년 9월 26일 서울 YMCA 1층 레스토랑에서 ‘핵발전소 11·12호기 건설 반대 100인 기자회견’에 이어 29일 서울 향린교회에서 47개 단체가 참가한 ‘핵발전소 11·12호기 건설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이 열렸는데, 영광 무뇌아 사건은 좀처럼 대중 운동의 마당에 내놓기 어려운 반핵운동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신동호).

사실 원전 직원의 아기가 뇌가 없었다는 보도로 시작된 이 무뇌아 사건은 ‘뇌가 없다’는 측면에서 이번 광우병의 ‘뇌 숭숭’이라는 자극적인 단어가 촉발한 사태와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

그리고 1990년 안면도 주민들이 언론의 안면도 핵폐기장 건설 특종 보도로 이 지역에 정부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주민 1만8000여명이 핵폐기장 반대 운동에 나섰고 파출소가 불타는 등 격렬한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결국 정부는 밀실 행정의 책임을 물어 당시 과학기술부 장관을 경질하고 일방적으로 처분장 부지를 지정하던 방식을 바꿔 지역 주민과 협의하에 공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

8) 최근 내가 다니는 천주교회 한 여성 신자는 신자들의 모임에서 미국은 자기들이 먹지 않는 위험한 소를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것이며, 미국에서는 광우병에 걸린 소는 죽여서 골분을 만들어 소들에게 사료로 먹인다는 지식을 진지하게 전파하고 있었다.

속하였다.

그 후 1994년에는 경기도의 굴업도가 입지로 선정되었는데 당시 굴업도에는 9가구만 살고 있었고 환경 단체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힘이 없는 곳을 찾을 뿐 활성 단층 등 지질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굴업도 인근 섬과 육지 대도시에서 반대 운동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정작 굴업도 핵폐기장 지정이 철회된 것은 이 지역에 활성 단층대가 발견되면서였다.⁹⁾

안면도 사태는 지역 주민들의 핵폐기물이라는 말에 대한 신경질적인 반응과 이들이 험악한 공포에 대하여 정부와 원자력산업 종사자들의 이해가 부족하였던 것에 기인한다. 핵폐기물 처분장이 들어서면 방사능으로 인하여 대대손손 자손들이 기형아를 출산한다는 말에 대하여, 대체 고온 고압 상태에서 운전되는 원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적으로 안전한 방사성 폐기물이 위험하다는 대중들의 생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당시 전문가들과 정부의 입장이었다.

오늘날 쇠고기가 수입되면 자손들의 광우병에 쓰러질 것이라는 우려에 진저리를 치는 것과 당시의 주민들의 핵폐기물에 대한 공포 간

에는 역시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

오늘의 이 '광우병 현상'은 과거 안면도 사태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반대를 위하여 거리로 나선 사람들의 모습과 그리고 과거 영광 무너야 사건으로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며 소요하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원자력 종사자들은 오늘 원자력과 관련한 문제들을 다루는 지혜를 이제 터득하였다고 자만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주민에게는 갈등관리방법론을 사용하여 그들의 심리적 측면에 잘 대응하고 있으며 원자력 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후생(welfare) 감소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방법에도 익숙해졌고, '원전 반대' 구호를 외치던 반핵 단체들을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토론에 참여시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할 줄도 알게 되었으며 정보 공개도 잘 하고 있고 언론과의 관계도 순조롭다.

그러나 미디어의 선정주의와 하이어나주의를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사용후연료의 공론화를 시작하고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의 확대를 추진할 의욕을 불태우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추진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에 서투르게 대응하고 그리고 미디어의 선정주의가 발동되고 인

터넷 군단들이 가세하면 '대재앙'이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리스크와 관련된 중요 정책 결정 시에는 과학적 기술적 사실 이외에 정치 경제 사회 심리학적인 외적인 요인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의사 결정은 신중하여야 하며 주변 전문가들과 비전문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고 고려하여야 한다.

체르노빌 이후 20여년, 대형 사고 없이 지나온 시점에서 보면 오늘날 원전이 위험하다고 국민들이 혹은 지역주민들이 대대적으로 촛불을 들고 나올 일은 없으리라고 믿고 싶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역동적인 사회와 사대에 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다시 우리 원자력 시설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리고 사업자와 규제자가 이에 안이하게 대응하여 조기에 적절하게 진화하지 못하면 안전에 광적으로 민감한 우리 국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고 원전 앞으로 혹은 도심으로 몰려오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핵문제는 미국 소수입과는 다른 측면에서 고도의 정치적 함의를 갖는 것이므로 정치 세력들이 충분히 이를 이슈화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안전성 확보에 있어서

9) 1994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로 선정된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굴업도의 처분장 계획은 1995년 굴업도 3km 이내 해저에서 최소 2개조의 활성 단층이 확인되자 시설 입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공학적 처리나 안전성 확보가 어려워 이를 백지화하였다. 안면도가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추진하겠다는 기술주의적, 엘리트적 비밀주의적 방식으로 접근해서 실패했으며 이는 주민의 반대 등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었던 데 반해 굴업도는 먼저 주민들 수가 적고 반대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골라서, 즉 사회적인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였고 물론 주민의 반대로 있었지만 정작 나중에 기술적인 문제가 대두되면서 철회된 것으로서 아이러니컬하다.

신중한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자만심을 경계하며 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신속한 대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환경, 사회심리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사업자는 원자력 시설에서의 사고가 없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예방이 최고의 전략이다. 선불리 원자력 르네상스에 흥분하여 자만심에 취하여 '사고 없는 이 좋은 시절'을 즐기려고만 한다면 그러한 대도가 안전문화의 저하를 초래하여 불행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규제 기관 역시 지금까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엄정한 규제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원자력산업을 도와주는 것이다. 선불리 원자력사업자 프렌들리한 규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은 갖지 말아야 한다. 만일 원자력 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난다면 언론이나 대중은 즉각 규제 기관의 감독 소홀까지 엮어서 대대적인 비난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맺음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결정한 정부의 정책 결정이 촛불시위 등으로 국민적 저항을 겪고 있고 그것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그것이 상당부분 왜곡된 방송매체의 보도와 인터넷 특성에 의한 것이든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적

낭비를 경험하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정책 결정이 한때의 혼란을 겪은 후 장기적으로는 안전하고 값싼 쇠고기를 우리국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또 FTA를 성공시켜 우리나라의 공산품의 대미 수출을 활성화하고 국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 불확실하며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회심리학적 현상을 목격하여 왔다. 역시 방송사가 제기했던 황우석 교수 논문 조작 사태의 폭로, 아프간 인질 사태 발생시 당사자들과 해당 교회에 대한 국민들의 사이버 공격, 여중생 미군 탱크 희생으로 인한 촛불 시위 사태 등 전 국민적인 움직임을 불러일으킨 사건들은 모두 초기에 그 사실의 사회심리학적 충격과 중대성을 모르고 안이하게 대응한 것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것이다.

원자력 르네상스로 원자력 관계자들이 가벼운 흥분 상태에 젖어있는 요즘, 광우병 사태로 촉발된 대중들의 리스크 인지, 방송 매체의 선정적인 보도, 이러한 인터넷을 이용한 위험도 커뮤니케이션의 한계 등의 관점에서 교훈을 얻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광우병 사태는 결국 위험도에 대한 대중 인식의 문제이며 매체의 리스크 정보 전파의 양식의 문제이고 그래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사태에서 원자력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최대의 교훈을 얻어야 하며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원자력 분야에서 과거 안전도 사태와 영광 무늬아 사태 등의 재판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넘쳐나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인하여 점점 더 정서적 심리적으로 위험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으며 선정주의화되는 미디어와 디지털 환경은 그것에 유리한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

오늘 한국의 이 촛불 시위 현상은 어떠한 비용이 들어도 최고의 안전을 지향해야 한다는 '안전의 이데올로기화'가 우리나라에 발현되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한다.

우리 지도자들이 이 시대와 사회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지혜롭게 이 사태에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한다. ☎

(본 원고는 소속기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참고 문헌>

1. 광우병의 과학적 진실, 이영순, 서울대 인수공통질병연구소 소장, CEO Report, 자유기업원, 2008.6.26
2. 한국사회의 위험과 안전, 임현진 외,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총서, 2002